

## 감사인사를 드리며



최 병 관

- 경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20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렬 합격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0년도 5급 공채 일반 행정(전국)직렬 합격생 최병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도 수험기간 도중에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니, 여러모로 혼란과 답답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기를 바라며, 제가 쓰는 글이 여러분께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II. 수험생활

제가 5급 공채시험에 진입한 건 친구들의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라 경험삼아 응시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급하게 준비하여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준비가 선불렀던 탓인지 점수는 썩 좋지 않았고, 결국 2019년도 시험에서는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5월 중순쯤 다시 5급 공채시험에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고시반이 있었기에 고시반 일정에 맞추어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별도로 신림동에서 현장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고시반을 이용하면 수업을 보다 저렴하게 들

을 수 있다는 점, 학교도서관에서 각종 서적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장소가 어디든 그저 최대한 빨리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공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주로 2차시험 준비에 집중하며 순환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일과는 순환강의와 복습, 스터디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중 스터디를 정말 많이 활용했는데, 스터디 구성원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점과 꾸준히 공부하도록 강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덕분에 초기에 시험준비를 시작할 때는 힘들었으나 차츰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공부할 당시에는 하루 10시간 공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차츰 공부에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열람실에 왔다가 집에 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했습니다. 열람실 밖으로 나갔다 오는 것도 번거로워서 정말 피곤한 날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점심/저녁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3순환 때에는 시험 외적인 것에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 주변에서 월식을 하였습니다). 3순환 이전에는 월요일~토요일 동안 1시쯤 자서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며 7시 30분~8시 사이에 열람실에 와서 23시 이후 집에 갔습니다. 3순환 이후에는 1~3시쯤 자서 7시 30분 정도에 일어나 8시쯤 열람실에 와서 00시~2시 사이에 집에 갔습니다. 보통은 일요일에도 약속이 없는 이상 아침에 잠을 좀 보충한 뒤 오후부터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맞추어 공부하다 보니 체력이 부족함이 느껴져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하

루 20~30분 정도 달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몇 달간 운동을 계속하다가 2020년 1차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만 두었고, 이후에는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준비를 계속하던 도중 2020년도 시험 예정일이 2월 말로 공지되었고, 1월부터 다시 1차시험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한창 준비해나가고 있을 때, 시험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하여 시험이 연기되었습니다.

시험연기가 발표된 다음 날부터 공부습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2차시험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시험공지가 나오고 나서 1차시험을 다시 공부하여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혼란스러운 시험일정과 낮은 시험 유형 때문인지 5급 공채시험 1차시험에서는 합격선에 딱 걸친 점수로 겨우겨우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입법고시 1차시험도 보러 갔었는데, 2차시험 준비와 병행하며 급하게 준비하느라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운이 좋았는지 언어논리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5급 공채의 2차시험은 8월에 치러졌습니다. 7~8월 정도에 이르니 당시 오랫동안 계속되던 장마, 체력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 및 불안감으로 인해 상당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달성하고자 했던 공부 시간은 꼭 채우고자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가까스로 5급 공채의 2차시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급 공채 2차시험을 친 후 9월 초의 입법고시 2차시험까지 2주 정도 여유가 있어서, 2~3일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입법고시를 준비

하였습니다. 당시 텅 빈 열람실에 저만 남겨졌다는 느낌에 공부 분위기를 다잡기 어려웠으며, 2학기 학교 복학을 해놓은 상태라 학업과 시험공부를 병행하느라 신경이 많이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5급 공채 시험 2차시험을 치르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공부내용을 보완하고자 노력했고, 덕분에 입법고시 2차시험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차시험 이후에도 제 성적에 관한 확신이 없어서, 경제학 문제를 풀고, 국제경제학과 정치학 강의를 듣는 등 공부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11월 중순에는 입법고시 2차시험 불합격을 통지받았습니다. 이후 11월 말에는 5급 공채시험 2차시험 합격을, 면접을 치른 후인 12월 말에는 5급 공채 최종합격을 통지받았습니다.

### III. 제1차시험의 과정

#### 1. 개 괄

저의 2020년도 5급 공채시험은 PSAT 성적은 평균 75.83점으로, 합격선도 75.83점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2020년도 입법고시 PSAT 성적은 평균 84.16점으로, 합격선은 80.83점이었습니다. 1차시험에서 구체적인 제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5급 공채시험 100, 입시 84
- 언어논리: 5급 공채시험 75, 입시 97.5
- 자료해석: 5급 공채시험 77.5, 입시 82.5
- 상황판단: 5급 공채시험 75, 입시 72.5

저는 1차시험을 공부할 때도 2차시험을 공부하는 것처럼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만, 그로 인해 잠을 폭 자지 못해 오히려 점수가 더 높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PSAT는 점수와 공부량이 비례하지 않으니,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되, 과도한 공부로 인한 몸의 피로로 실력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PSAT는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들을 먼저 풀어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2. 헌 법

헌법은 특정점수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지만, 언어논리 시험에 앞서 치러지므로 헌법에서 적절한 점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언어논리 시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헌법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심화강의 외에 별도의 강의를 듣지 않고 기본서 회독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고, 조문을 모조리 외우겠다는 마음보다는 조문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했습니다. 이후 진도별 모의고사와 5급 공채시험·입법고시·7급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 구성방식을 익혀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을 많이 쏟은 덕분인지 5급 공채시험에서는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3. 언 어 논 리

언어논리는 평소에 좋아했던 과목이고, 실제로도 모의고사나 기출에서는 점수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연역논리나 귀납추론 부분의 경우 따로 단행본을 구매하여 해당 책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어

논리를 공부하면서 연역논리 부분은 가장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겼기에, 처음에는 기호화를 통해 논리문제를 빠르게 푸는 법을 익혔습니다. 연역논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귀납추론 및 강화약화의 접근법을 체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 특히 기출문제의 질이 모의고사보다 좋기에, 학원 모의고사를 여러모로 풀되, 마지막에는 기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5급 공채 시험장에서 과도하게 긴장하였고 2020년도 시험이 과거 기출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 당황한 탓인지, 언어논리에서 고득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6월에 치러진 입법고시에서는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긴장하지 않은 채 시험에 임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자료해석

자료해석의 경우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이라든가 선지를 만드는 방식이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기에, 기본강의를 듣고 접근법을 체득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료해석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는 계산을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필요한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자료해석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기록을 남기는 데 급급한 나머지 실제 실수를 고치도록 노력을 많이 하지는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실전에서는 언어논리를 잘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료해석에서도 긴장을 쉽게 풀지 못했습니다. 결국 평소 모의고사 때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5급 공채시험 자료해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입법고시에서는 운이 좋았는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5.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평소에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어서, 제 실력으로 상황판단에서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전이나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 때도 항상 방어적으로, 너무 못 보지만 앓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했습니다. 상황판단을 풀 때는 1~8, 19~28, 39~40번을 먼저 푼 이후 9~18, 29~38번을 푸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렇게 하면 퀴즈문제를 제외하고 20문제를 풀 수 있어, 제게는 시간 관리 측면에서 더 편했었습니다. 상황판단의 경우 직관적으로 빨리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 장치로 인하여 제한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 선택과 집중에 더욱 신경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전에서 5급 공채시험은 2019년보다는 난이도가 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몇몇 문제에서 고전했고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기도 하여,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입법고시 상황판단은 과도하게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 당황스러웠는데, 운이 좋게도 찍었던 문제 중 몇 개가 맞으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 IV. 제2차시험의 과정

### 1. 개 괄

2020년도 5급 공채시험에서 제 평균 점수는 64.74점이고, 합격선은 60.07점이었습니다. 입법고시의 경우 제 평균 점수는 57.99점이고, 합격선은 62.07점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학: 5급 공채시험 94.33, 입시 48.66
- 행정법: 5급 공채시험 49, 입시 61
- 행정학: 5급 공채시험 49, 입시 58.33
- 정치학: 5급 공채시험 69.33, 입시 65.33
- 정보체계론: 5급 공채시험 29.66, 입시 27.66

경제학의 경우 입법고시 점수가 상당히 낮는데, 시험장에서 1문과 3-(2)문을 거의 통째로 못 풀었기 때문입니다. 5급 공채시험의 경우 3-(2)문을 풀지 못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고득점을 얻어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행정학에서는 입법고시 점수가 5급 공채시험보다 더 높는데, 아무래도 이번 입법고시가 5급 공채시험 다음에 치러지다 보니, 5급 공채시험 2차시험에 응시해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그런 듯합니다.

2차시험 준비는 순환 강의를 그대로 따라갔고, 예비순환-1순환-2순환 동안은 추가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당일 배운 것을 복습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꼭 한 번은 배운 내용을 복습했고, 다음 날에도 다시금 같은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복습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 있다면 교과서나 다른 강사

들의 교재 등도 다수 활용하여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차근차근 정리해둔 것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개 특정한 하나의 교재에 여러 강의 및 참고서 등을 정리하였고, 행정학의 경우에만 별도로 서브 노트로 제작하였습니다.

### 2. 경제학

저는 황중휴 강사님의 강의를 토대로 경제학을 준비하였습니다. 황중휴 강사님의 경우 초시생에게는 다소 어렵다는 평이 있기는 하지만, 원리나 수식을 통한 접근이 경제학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재의 경우 황중휴 강사님의 『트리니티 경제학』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교과서로는 임봉욱 교수님의 『예제와 함께 하는 미시경제학』,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정운찬·김영식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등을 참고했습니다.

처음 1순환을 들을 때는 강의를 통해 개념을 이해한 다음 연습책의 문제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대부분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해설을 참고했습니다. 이후 점차 문제를 반복하여 풀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1순환 이후부터 시험을 칠 때까지 황중휴 강사님의 연습책을 3~4번 정도 반복하면서 경제학 문제풀이에 집중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후에 경제학 기출문제 스터디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출은 5급 공채시험·입법고시·외무고시를 모두 보되, 국제경제학에 너무 치우친 문제들은 배제하고 풀었습니다. 돌이켜볼 때 국제경제학 과목에 따로 투자하지 않아 2020년도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 모두 3-(2)문

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급 공채시험에서 기출경향을 볼 때 엄청 복잡하거나 어렵다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해, 문제를 풀 때면 그 이면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학은 답이 맞았는지 여부가 시험 점수를 크게 좌우하므로, 검산을 반복적으로 해서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경제학은 답안 분량이 크게 중요치 않으므로 함의는 필요할 경우에만 쓰되, 길거나 무리하게 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3. 행정법

행정법은 평소에 정말 힘들었던 과목입니다. 행정법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법학 자체가 처음이었고, 어려운 개념들도 많아 복습하기도 버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기가 되지 않으니 특정 쟁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암기장인 핸드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개념을 암기하였습니다. 수험 기간 내내 핸드북을 붙잡고 다녔으니, 말 그대로 책이 닳을 정도로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암기하다 보니 어느 정도 개념 및 유형화된 접근법이 익숙해졌고, 그 이후에야 답안작성이 비교적 수월함을 느꼈습니다.

강의는 정선균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고, 교재로는 정선균 강사님의 『행정법 엑기스』(현 행정법 강해)와 핸드북, 그리고 정하중 교수님의 『행정법개론』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행정법은 학설 및 관점이 다양하다 보니, 너무 많은 교재를 참고하기보다는 특정 교재를 중심으로 두고 필요할 때 다른 책들을 활용

하여 쟁점을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공부가 깊지 못해 행정법 전반의 이해도가 그리 높지 못했다는 점, 3순환 막바지 때 논문 과목을 준비하느라 행정법을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행정법은 5급 공채시험 2차시험의 첫 번째 과목이어서 상당히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급 공채 시험에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이후 입법고시 때는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행정학

행정학은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과목입니다. 여타 과목과 달리 공부를 할수록 오히려 헛갈리는 부분이 더욱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공부하기가 까다로운 과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은 박경호 교수님의 강의를 따라갔습니다. 박경호 교수님 필기자료 및 각종 논문, 제가 정리한 별도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별도로 서브노트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행정학 과목을 이해하고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먼저 내용암기를 병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서 특정논점과 대안을 연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학자와 최근 코로나 관련 사례들을 정리해놓은 것이 답안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재는 주로 박경호 교수님의 『재미있는 행정학』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개별 논점 이해에 급급했는데, 자주 읽다 보니 전체적인 틀 속에서 총론과 각론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순환 이후에야 전반적인 행정학의 틀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데, 그 이후에야 행정학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 5. 정치학

정치학은 평소에 꽤 좋아했던 과목이었습니다. 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해매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공부하였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학자나 사례를 토대로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다지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공부 범위를 늘려나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예비순환/1순환/3순환 모두 다른 강사님을 선택했습니다(2순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로만 따지자면 정치학이 가장 많은 교재를 가지고 있었고, 각 교재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빠진 쟁점을 교차해서 보충하였습니다.

정치학은 별도의 서브 노트를 만들지는 않았으며, 스티디도 기출문제 풀이 스티디만 했습니다. 스티디에서는 최근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기출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답안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정치학 답안 작성 방식을 알아갔습니다. 정치학의 경우 특히 과거 기출이 다시 현재 시점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서 자주 활용되는 사례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인터넷을 통하여 최근 국제정치의 동향에 대해 정리해둔 것이 실전에서 답안 작성 시 도움이 되었습니다.

## 6. 정보체계론

정보체계론은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시다만, 공부하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점에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흔히 정보체계론을 3순환 때만 바짝 공부하고는 하는데, 저는 이런 공부방식은 너무 불안함을 크게 만든다는 생각에 1순환 강의를 한번 들은 다음 3순환을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선 체계를 잘 잡은 다음 그 체계 내에서 최근 중요한 개념, 사례,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암기를 병행하였습니다. 학문 자체가 최신 경향이 많이 반영되어 암기가 여타 과목에 비해서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5급 공채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모의고사 등에서 보던 익숙한 논점이 아니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답안 쓰던 습관이 조금 남아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과거의 모의고사 답안 내용과 이전에 읽었던 논문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V. 제3차시험(면접시험)의 과정

5급 공채시험의 면접은 크게 직무역량 면접(개인·상황면접, PT)/공직가치·인성면접/그룹토의로 나뉘지만,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그룹토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공직가치·인성면접이 직무역량 면접보다 더 수월하다고 느꼈는데, 후자의 경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 관해서 얘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버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공직동기와 지망하는 부처 및 관련 정보, 최근 정부 현안 등을 정리해 두었고, 공직가치·인성면접과 관련해서는 동아리,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을 중심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보다는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공직가치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판단의 기준을 잘 설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면접을 준비했고, 별도로 학원에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면접 준비 당시에는 스테디를 집중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스테디에서는 직무역량/공직가치·인성 면접 등을 실제로 진행해보면서 태도나 내용과 관련된 피드백을 많이 진행하였는데, 저는 빠른 말 속도로 인하여 스테디 내내 피드백을 많이 받은 바 있어서 이를 고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밖에는 예의 있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두 팔식으로 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장으로서는 다크 네이비 정장에 흰 와이셔츠, 단정한 넥타이, 검정 구두를 준비했습니다. 머리는 올려서 이마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하여, 면접 당일 새벽에 메이크업과 머리 세팅을 사전에 예약해두었습니다. 당시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메이크업을 받고, 6시 40분에 출발하여, 7시 30분에 과천에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도착했습니다. 8시 30분까지 대기실 입실이어서 다소 여유가 있어 잠시 대기하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청심환을 복용했습니다. 이후 오전과 오후 동안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면접은 주로 보고서나 자료, 면접자의 작성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

서 손에서 땀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오전 면접이 끝나는 순서대로 먼저 점심을 먹었고 그 순서대로 오후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점심으로는 죽과 간단한 반찬을 먹었고, 커피·모과차·몇몇 간식거리를 조금 섭취했습니다. 이후 오후 면접을 치르고 끝나는 순서대로 먼저 퇴실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퇴실하던 그 순간이 가장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기다림의 끝에서 최종 합격을 통지받았습니다.

## VI. 나가며

수험생활 동안 감사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격려를 아껴주지 않았던 애정관 멤버 다애와 호정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 기간 내내 힘들어하는 저를 도와주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찰보리빵 멤버 제성, 정엽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같이 스테디를 했던 슬기, 성수, 제인, 인선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옆에서 함께 어울리며 자주 도와주었던 민섭, 해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종종 저를 불러 맛있는 밥을 대접하여주곤 했던 푸름, 동영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